

##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에 관한 연구\*

안영진\*\*

---

**요약:** 2000년대에 들어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 각급 대학들이 입학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전력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이주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의사결정구조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졌던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유학생들의 이주과정을 유학 전(입국 전), 유학(정착 및 적응), 유학 후(귀국 또는 국내 체류)라는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이동 특성을 주요 배경요인과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유학을 다양한 요인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이주의 각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에 정치경제적·개인적·직업적 동기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어:** 유학, 외국인 유학생, 이주과정, 배경과 동기, 의사결정

---

### 1. 서론

#### 1) 연구목적

2000년 이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4월 1일 현재 국내 각급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6만 3,952명에 이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 수치는 2000년 6,160명에 불과하였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와 비교해 볼 때,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97년부터 정부가 외국인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학 자율에 맡기고, 2000년대에

들어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2001년)과 이를 확대·보완한 'Study Korea 프로젝트' (2004년)를 수립·시행하면서 유학생 유치에 전력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의 많은 대학들도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대학 학생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경주해 왔다. 특히 정부의 'Study Korea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한 2010년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가 2007년에 조기 달성되면서, 지난 2008년 8월에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방안'<sup>1)</sup>을 통해 2012년까지 국내 체류 유학생을 연간 1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앞으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오랫동안 유학생의 세계적 송출국의 하나로서 '오명 아닌 오명'을 들어온 우리의 고등교육체계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안영진 외, 2008). 우선 대학의 교정과 강의실에서 외국 유학생들과 조우하는 일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각 대학들도 국제화의 명목 아래 유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강좌 확대나 국제적 졸업 인증제의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를 둘러싼 대학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유학생의 단기 급증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수험능력을 불문하고 입학 허용하거나 입국한 유학생들이 본래 목적과 달리 중도 이탈하여 취업에 나서는 등 유학생의 입학과 관리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유학생 증가는 실속 없는 '인재유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이 확대되는 국내 경제 여건 하에서 유학을 마친 외국인 학생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외국인 문제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끌어 온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는 또 다른 유형의 유입인구로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이 문제도 학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학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학생의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거나(박태호 외, 2001; 노종희 외, 2002; 이명재 외, 2006; 최정순 외, 2007),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실태 분석을 행하고(안영진 외, 2008; 이태식 외, 2009), 또한 이들 유학생의 국내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국내 유학생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응문제는 학생들이 유학생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언어, 교육체계 및 학습양식에의 부적응 등)과 타문화 체험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성공적 유학생 생활을 위한 요건들(경제적 기반, 주거, 지역사회 적응 등)을 강조하고 있다(안선민 외, 2006; 이익수 외, 2006; 권양이, 2008).<sup>2)</sup> 따라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학생 유치를 둘러싼 각국 간의 경쟁이 치

열해지고, 또한 국제이동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패턴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이주배경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각 대학들이 유학생의 유치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작 이들의 국내 유학의 배경과 목적, 유학이라는 이주과정을 따른 구체적인 의사결정 등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외국 유학은 오랫동안 몸담아 온 모국을 떠나 모든 점에서 전혀 생소한 외국에서 학업을 하는 것으로, 이주에는 출발지 국가에서의 유학을 위한 준비와 이주결정, 목적지 국가에의 입국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화 및 교육 환경에의 적응과 정착 그리고 학업 후 출발지 국가로의 재이주(귀환) 또는 유학 국가에의 잔류라는 일련의 과정이 결부되어 있다. 유학이라는 이주결정과 이동행위의 모든 과정에는 또한 매우 복잡한 배경요인과 동기가 존재한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의 유학생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국제적 교류 협력의 확대라는 거시적 환경변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Kwiek, 2001; OECD, 2004; IOM, 2008). 그러므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이주흐름과 유형을 유학생 이주의 일련의 단계를 연계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유학생의 국내 적응과 관리,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과정을 유학 전(입국 전 준비), 유학중(입국 후 정착), 유학 후(귀국 또는 국내 체류)라는 세 단계를 나누어 보고, 각 단계에 따른 유학의 배경과 의사결정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과정과 주

표 1. 설문조사 지역 및 응답자 특성

| 구분       |          | 응답자    |       | 구분       |          | 응답자    |       |
|----------|----------|--------|-------|----------|----------|--------|-------|
|          |          | 표본수(명) | 비율(%) |          |          | 표본수(명) | 비율(%) |
| 조사<br>지역 | 서울       | 55     | 15.4  | 입국<br>연도 | 2005년    | 33     | 9.2   |
|          | 경기       | 49     | 13.7  |          | 2004년 이전 | 17     | 4.7   |
|          | 대구       | 55     | 15.4  |          | 무응답      | 20     | 5.6   |
|          | 경북       | 79     | 22.1  | 교육<br>과정 | 어학연수     | 137    | 38.3  |
|          | 광주       | 62     | 17.3  |          | 학사과정     | 132    | 36.9  |
|          | 전남       | 58     | 16.2  |          | 석사과정     | 56     | 15.6  |
|          |          |        | 박사과정  |          | 20       | 5.6    |       |
| 국적       | 중국       | 209    | 58.4  | 무응답      | 13       | 3.6    |       |
|          | 일본       | 31     | 8.7   | 연령       | 21세 이하   | 34     | 9.5   |
|          | 인도       | 23     | 6.4   |          | 22~24세   | 172    | 48.0  |
|          | 필리핀      | 16     | 4.5   |          | 25~26세   | 54     | 15.1  |
|          | 미국       | 9      | 2.5   |          | 27~29세   | 69     | 19.3  |
|          | 기타       | 70     | 19.6  |          | 30세 이상   | 25     | 7.0   |
|          |          |        | 무응답   |          | 4        | 1.1    |       |
| 입국<br>연도 | 2008년 이후 | 157    | 43.9  |          | 합계       | 358    | 100.0 |
|          | 2007년    | 89     | 24.9  |          |          |        |       |
|          | 2006년    | 42     | 11.7  |          |          |        |       |

된 배경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국내 각 대학에서 수학과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등 3개 지역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삼아 각 지역에 속한 4년제 대학 위주로 약 40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담 및 자기기입 방식으로 자료조사를 행하였다. 2008년 10월에서 2009년 1월에 걸쳐 수행된 400부의 설문조사에서 유효 설문지 358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당초 설문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를 물론이고 적응에 관한 항목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설문 내용 중 유학생의 국적, 성별, 연령, 결혼여부, 종교, 입국연도, 교육과정, 한국어 능력, 거주지역 등 일반 사항과 함께 이주 전의 삶의 여건, 이주의 거시적 배경, 이주의 미시적 동기, 이주 매개기관 등의 이주 배경과 의사결정과정과 관련한 부분의 조사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의

개요 및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2. 이론적 고찰

### 1) 국제이주이론 검토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학생의 이동은 크게 늘어났고, 오늘날 국제이주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안영진,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유학생의 국제적인 이주규모나 패턴 등은 UNESCO나 OECD의 조사 통계와 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져 왔으나(UNESCO, 1998; OECD, 2007), 조사 대상국의 제한 및 조사범위와 방법의 난점 등으로 유학생의 정확한 총수는 물론이고 유학생의 국제적 이주과정과 배경,

특성 등은 여전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도 여타 국제이주 현상에 비해 유학생의 이동을 이론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최근 들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제이주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조명(석현호, 2003; 김용찬, 2006; 전형권, 2008; 박배균, 2009; Pries, 2008)은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이동패턴을 설명하는데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국제이주이론은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에 설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학생의 이주를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의 이주도 국제이주의 한 유형이자 인구이동의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과 분석들은 유학생 이주의 동인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원용될 수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그동안 밝혀진 유학생 이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제이주에 적용된 이론과 모델들은 국제이주의 발생과 지속(또는 영속) 그리고 적응(또는 정착) 과정에 관해 일련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유학생 이주의 과정과 배경에 있지만, 이주의 발생과 지속 및 적응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성립하므로, 후자에 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이주이론에서는 이주의 발생을 한편으로 '신고전경제학의 거시 및 미시이론' 과 '신이주경제학', 또 한편으로 '노동시장분절론' 과 '세계체제론' 으로 접근하고 있다. 신고전경제학은 노동력 수급의 지역차로 인구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전경제학의 거시이론은 국제적 인구이동이 자본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풍부한 국가에서 자본은 풍부하나 노동력은 부족한 국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석현호, 2003: 17). 아울러 신고전경제학의 미시이론은 '인적자본론' 으로 대표되며, 이는 이주를 인적자본투자 현상으로 파악하고 사람들이 교육·경험·훈련·언어능력 등 자신의 인적자본을 투자하여 고용이 가능한 지역, 비용과 이익의 계산에

의해 순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신고전경제학의 접근은 이주의 결정이 개인적 행위자에 의해 이뤄진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현실의 국제이주는 개인보다는 가구(또는 가족)나 공동체 등 보다 큰 단위의 행위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김용찬, 2008: 85), 특히 가구의 기대소득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자국내 시장에서의 위험요소를 극소화하고 불안정을 이완하기 위해서도 이주한다. 바로 이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 이주를 설명하는 것이 신이주경제학이다. 이상의 신고전경제학은 국제이주가 국가간의 임금격차로 발생하므로 이주가 진행되면 임금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결국 국가간 이주도 멈추게 된다는 균형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신이주경제학은 국가간의 임금격차가 나지 않더라도 이주가 가구들이 소득 원천을 다원화하기 위한 방편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석현호, 2003: 18). 하지만 이들 이론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국제이주를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즉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김용찬, 2006: 86),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서서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 즉 경제구조와 출발지 국가와 목적지 국가간의 역사적 특수성과 문화적 경로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나 역할 등을 간과하고 있다(전형권, 2008: 268).

위의 합리적 선택이론과 달리 이주의 주된 요인으로 경제구조적 조건을 고려하는 이론들은 다른 아닌 세계체제론과 노동시장분절론이다. 세계체제론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변국 시장침투가 국제이주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 즉, 세계 경제에서 중심부 국가의 자본가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찾아 주변부 국가로 침투하고 주변부 저발전사회의 불균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적 노동이동이 자본과 상품의 흐름과 정반대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흐름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과거의 식민지와 그 모국 간에 한층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 간에는 언어·정치·교통통신 등의 연결이 일찍이 형성되어 있고 시장 및 문화관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석현호, 2003: 20). 반면에 노동시장분절론은 이주 대상국의 경제구조, 즉 노동시장구조에 주목하여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적 노동이동은 단순히 후진국의 저임금이나 높은 실업률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분절론은 자본주의 시장에 자본집약적인 1차 노동시장과 노동집약적인 2차 노동시장 간에 분절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선진국 경제구조 내의 저임금, 불안정한 환경과 유동성 전망의 부재 등은 본국 노동력을 부차적 부문보다 자본집약적인 주요 부문으로 집중하게 하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부차적 부문의 노동력은 이주 노동력에 의해 충원된다고 설명한다(김용찬, 2006: 85; 박배균, 2009: 619). 이상과 같이 구조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은 국제이주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국제이주자들의 이주동기를 일반화시켜 행위자의 선택을 구조차원으로 환원시켜 설명함으로써 이주과정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전형권, 2008: 271), 주로 대규모 이주 또는 노동력 이주를 분석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최근 들어 증가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국제이주를 포함한 국제이주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용찬, 2006: 90).

한편으로 국제이주이론은 국제이주의 발생원인 또는 조건들은 일정 이주흐름이 확립되면서 형성되는 후속 이주의 사회적 조건들과 상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른바 이주의 지속 혹은 영속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영속화이론으로서는 '사회자본론'과 '누적원인론'이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자본론은 어느 두 국가 간의 이주자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주연결망, 즉 이주자, 선이주자 그리고 이출지와 입입지의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친족, 친구, 동향인 등의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이주연결망이 확립되면, 그것은 이주의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고 순이익을 증대시켜줌으로써 이들 간의 이주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석현호, 2003: 23). 이처럼

국가 간의 이주연결망의 형성은 이들 국가 간의 이주를 영속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데, 이 사회적 연결망은 사람들이 국제이주에 대한 접근통로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자본의 형태를 취한다(전형권, 2008: 273). 그리고 누적원인론은 이주가 일단 발생하면 사회제도(조직체)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주에 의해 변화된 사회적 맥락이 이주의 원인이 되어 차후의 추가적인 이주가 이뤄지는 등 이주가 영속화되는 경향을 설명한다.

이상의 동화론과 함께 오늘날 국제이주이론은 이주의 결론론, 즉 이주 후의 적응 혹은 정착에 관한 이론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관한 이론으로서는 경제학적 접근이 강조되는 인적자본론과 노동시장분절론, 사회학적 접근인 이민사회학과 경제사회학이 거론된다(석현호, 2003: 26). 경제학적 접근의 인적자본론은 인적자본론을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원용한 것으로, 이주자의 적응이 이주 전에 축적한 인적자본이 아니라 이주 후에 획득한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된다는 동화효과를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노동시장분절론은 이주자의 적응문제를 이중노동시장론, 분할노동시장론, 인종집단특수시장론 등의 입장에서 조명하는 것이다(안영진 외, 2002). 아울러 사회학적 접근은 이주자들의 적응연구를 위한 개념으로 중심부-주변부 관계의 영향, 편입양태, 중개인집단, 인종군락, 비공식경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국제이주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주는 과정적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장황하게 그 발생과 지속과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적응과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주의 특정 국면이나 단계를 설명하며, 이주과정 또한 개인과 가족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과 국가적·국제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분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국제이주의 인과과정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몇몇 논자들은 통합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복잡한

국제이주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규모 구조적 요인과 미시적 사회연결망의 결합을 추구하는 다차원적 구조론을 제시하거나(Castles *et al.*, 2009), 매년 상대적으로 수많은 이주자들을 교환하는 국가들 간의 체계화된 이주 흐름을 주목하면서 어느 두 국가가 정치·경제·사회·인구학적 환경을 배경요인으로 하여 노동력을 송출하고 수용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의 이주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주체계론을 설명하고 있다(김용찬, 2006: 92; 전형권, 2008: 275).

## 2)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 요인 논구

국제이주이론은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차원에서 국제이주의 발생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며, 이런 의미에서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에 대한 논구에 단초를 제공한다. 유학생은 달갑지 않은 국제 난민이나 불법 또는 합법 이주자 등과는 달리 수용국가에 경제적 부담이나 인도주의적 도전 또는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오히려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Teichler, 2007). 아울러 유학은 체류목적에서 비취업인 교육이나 훈련을 전제로 하며 체류기간과 관련해서도 관광 목적의 일시적 체류보다는 길지만 노동과 결혼 목적의 장기 또는 영구적 체류보다는 짧은 중·단기적 특성이 뚜렷하며, 대개 귀환이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유학생의 이주는 기존의 국제이주이론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만 이들 이론을 부분적으로 원용하되 보완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이주의 한 유형으로서 유학생의 이주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학생수의 증가는 세계화의 구조적 변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안영진, 2008; IOM, 2008) 유학생의 송출국과 유입국 간에는 독특한 공간적 흐름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별 국가차

원의 유학생 교류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은 유학생의 이동에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유학이라는 이주행위는 많은 경우 개인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복잡한 조건과 다양한 규모 속에서 이뤄지는 유학생의 이주는 국제이주이론이 시사하듯이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유학생 이주의 전 과정을 구조적 요소와 함께 행위적 요소에 의거하여 분석(석현호, 2003: 38)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주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규모의 힘과 과정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규모적(multi-scalar)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유학생의 국제적 이주는 거시적 차원에서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문화교류의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세계 체제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유학생의 이주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념적으로 대하 고유의 지적 보편주의나 세계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江淵一公, 1990; Hahn, 2004; Isserstedt *et al.*, 2005; 黒田一雄, 2007), 최근에는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제교류 정신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세계체제론이 설명하듯이 최근 유학생의 이주 역시 유학 후 취업이나 인재유치와 한층 긴밀히 연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의 한 유형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김남희 외, 2005). 이런 맥락에서 유학생의 국제적 이주흐름을 세계체제론에 입각하여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와 그 변화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Chen *et al.*, 2000)와 오늘날 관찰되는 세계적인 유학생 흐름의 배경과 동인을 세계화, 특히 경제세계화에 따른 숙련된 고급기술 인력의 유치나 이주 확대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은 이와 관련하여 적잖은 설명력을 제공한다(OECD, 2004).

이상과 같은 거시구조적 차원의 배경요인은 유학생의 이주결정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이며, 따라서 유학생의 이주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

라 그동안 유학생 이주에 관한 연구들(Altbach *et al.*, 2007; Naidoo, 2007; Lee, 2008)과 국제이주체제론(cf. 김용찬, 2006: 92-94) 등이 제시하듯이, 유학생 이주에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적 차원의 요인과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이주는 국가간 인구 이동의 형태를 띠며, 이런 의미에서 우선 유학생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다양한 매개요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고전경제학의 국제이주이론이 암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기원지의 배출요인(push factors)과 목적지의 흡인요인(pull factors)의 비교 평가에 의해 발생하는 인구이동 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은 유학생 이주에도 원용될 수 있다. 물론 유학생의 국제적 이주패턴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가 속한 아대륙 단위의 문화권 특성과 지리적 근접성, 국가 간의 정치 및 각종 경제관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UNESCO, 1998; OECD, 2007; IOM, 2008), 국가 간의 역사·문화적 요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유학생의 유치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육성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에 따라(OECD, 2004) 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각종 정책과 제도적 장치 등이 특정 국가로의 유학생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배제될 수 없다.

유학은 다른 인구이동 현상과 유사하게 거시적 구조에 의해 유인될 수 있으나, 그것은 동시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현상이기 때문에 행위의 상황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유학은 개인적 행위이고, 이 행위는 거시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석현호, 2003: 39). 현실적으로 각종 이주는 동일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도 개인에 따른 차이가 적지 않은데, 이는 개별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동기와 가치지향, 한걸음 더 나아가 개개인 이 지각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행태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대안적 이동 목적지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학생의 이

주에 작용하는 미시적 차원의 개인 수준의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cf. HEFCE, 2004)<sup>3)</sup>, 개인의 외적 동기, 즉 이주연결망과 유학에 대한 정보환경(Pimpa, 2003)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과정과 배경요인

#### 1) 유학 이전 단계

##### (1) 유학의 거시적 배경과 유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

유학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향후 개인의 삶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설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한 사람의 인생설계와 투자에는 개인적 차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개인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과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유학생들은 다른 이주현상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여건과 국가 간의 맥락, 즉 구조적 배경 하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한다. 이에 따라 먼저 국내 유학생의 이주 배경을 거시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유학생들이 과연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의 세계 상황과 관련하여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유학생들은 '세계적으로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N=353)와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N=353)에 대해 4.03점을, '국가 간의 경제적 발전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N=352)에 대해 3.82점 그리고 '최근 국제적 이주가 일반화되고 있다'(N=353)에 대해 3.75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렇듯 최근의 국제적 이주에 관한 인식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지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각각 19.6%(70명)와 39.9%(143명)로 60%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최근의 세계 동향과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의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유학이라는 의사결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유학의 결정 배경을 거시구조적 모델과 관련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거시구조적 모델은 인구이동과 관련된 국가들(송출국과 유입국)의 국제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원인과 양상을 분석한다. 즉,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발전정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 나라들 간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김남희 외, 2005: 359). 개인의 유학 결정에 있어 출신국과 유입국 요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국내 유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배경요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출신국가와 아울러 유학 대상국인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반 측면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조사해 보았다. 설문 조사 유학생들은 역시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살펴 본 출신국의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거나 낮게 평가하는 반면,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뚜렷한 대조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이처럼 유학 대상국인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높은 평가와 양호한 이미지는 우연이 아니다. 비록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유학 전 한국의 인지도 내지

인지수준은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보통 알았음 42.5%, 조금 알았음 30.4%, 많이 알았음 19.0%, 전혀 몰랐음 5.3%, 아주 많이 알았음 2.0%, 무응답 0.8% 순임), 한국에 대해서는 주로 영화·음악·드라마 등 문화매체(33.5%), 언론과 인터넷 등 대중매체(26.5%), 학교 교육(18.2%), 한국 제품과 기업(8.7%), 친지나 주변 사람들(5.3%), 유학 전 한국 방문 경험(2.8%), 기타(1.1%) 등을 통하여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과 이주배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이주 전 생활환경과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은 개인이 인적자본(교육, 경험, 훈련, 언어 능력 등)에 투자하는 이주형태를 띠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좌우되지만, 최근의 국제이주이론이 지적하듯이 개인 차원을 넘어 가구 또는 가족이나 공동체 등 보다 큰 단위의 행위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 유학생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공동체의 생활여건을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였다(표 2). 우선 설문 응답자들은 유학 전 주로 중도시(인구 5만~100만 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고, 다음으로 대도시(인구 100만 명 이상), 소도시(인구 2만 명 미만),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유학생은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도시 중에서도 중소도시 출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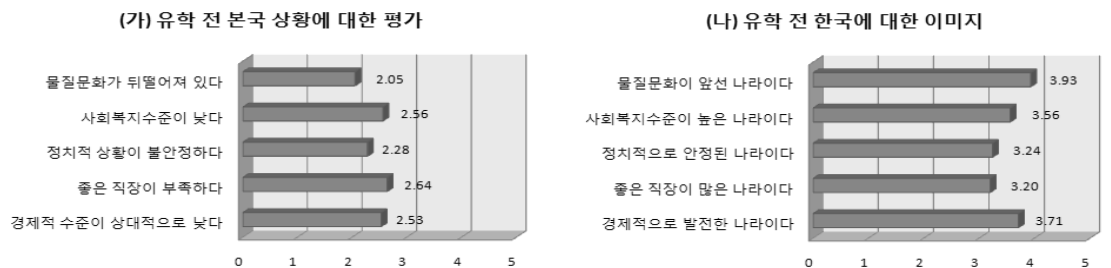


그림 1. 유학생들의 출신국과 한국에 대한 평가



표 2. 유학생의 유학 전의 사회경제적 배경

| 구분                    |        | 응답자    |       | 구분                    |        | 응답자    |       |
|-----------------------|--------|--------|-------|-----------------------|--------|--------|-------|
|                       |        | 표본수(명) | 비율(%) |                       |        | 표본수(명) | 비율(%) |
| 유학 전<br>유학생의<br>거주지역  | 대도시    | 121    | 33.8  | 유학생 가정<br>주소득원의<br>직업 | 교육개발직  | 38     | 10.6  |
|                       | 중도시    | 154    | 43.0  |                       | 공무원    | 49     | 13.7  |
|                       | 소도시    | 54     | 15.1  |                       | 기타/무응답 | 38     | 10.6  |
|                       | 농어촌    | 27     | 7.5   |                       | 계      | 358    | 100.0 |
|                       | 계      | 358    | 100.0 |                       |        |        |       |
| 유학생 가정<br>주소득원의<br>직업 | 농어업    | 20     | 5.6   | 유학생<br>부모님의<br>교육수준   | 무학     | 3      | 0.8   |
|                       | 단순생산직  | 22     | 6.1   |                       | 초등학교   | 8      | 2.2   |
|                       | 단순사무직  | 31     | 8.7   |                       | 중학교    | 18     | 5.0   |
|                       | 전문직    | 29     | 8.1   |                       | 고등학교   | 134    | 37.4  |
|                       | 판매유통직  | 23     | 6.4   |                       | 대학교    | 163    | 45.5  |
|                       | 경영서비스직 | 108    | 30.2  |                       | 대학원    | 29     | 8.1   |
|                       | 계      | 358    | 100.0 |                       | 무응답    | 3      | 0.8   |
|                       |        |        |       |                       | 계      | 358    | 100.0 |

유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유학생 가정의 주 소득원의 직업을 살펴보았다. 가정의 주 소득원이 아버지(76.5%), 어머니(12.6%), 본인(5.3%), 형제·자매(3.1%), 기타 및 무응답(2.6%)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 소득원의 직업은 주로 사무·경영직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과 교육·연구 개발직 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조사 대상 유학생들의 본국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주관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보통이 40.8%(14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며, 풍족함과 아주 풍족함이 각각 27.9%(100명)와 27.1%(97명)에 비해, 다소 빈곤함이 2.5%(9명) 그리고 아주 빈곤함이 0.6%(2명)로 매우 낮았다. 전반적으로 유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은 세대주의 직업적 측면이나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본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은 교육수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본 조사 대상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4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고등학교 졸업이 37.4%, 대학원 졸업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무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이 자녀들의 유학 결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 유학생들의 유학이라는 이주결정의 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유학 전 거주지역의 대학 진학률과 함께 한국 유학 이전의 해외체류 경험과 가족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체류하고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유학생들의 유학 전 거주지역의 대학 진학률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의 대학 진학률이 40~60%에 이른다는 응답이 35.2%(126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80%가 33.0%(118명), 80~100%가 18.2%(65명)로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의 경우인 20~40%가 6.7%(24명), 20% 이하가 4.2%(15명), 무응답이 2.8%(10명) 순이었다.<sup>4)</sup> 일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외국 유학 전 타 국가로의 방문 경험은 유학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외국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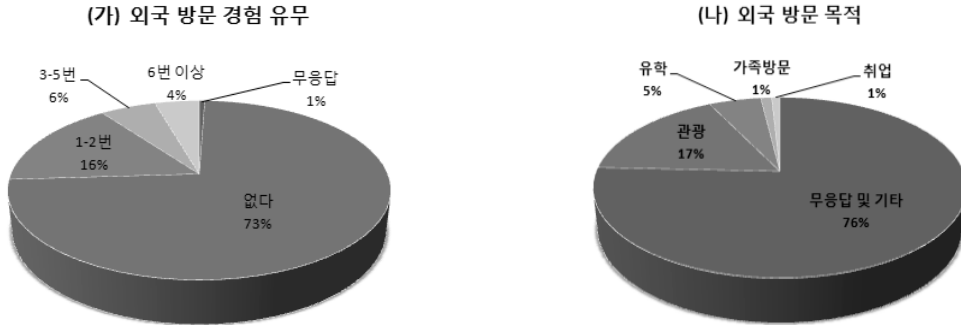


그림 2. 유학 전 외국 방문 경험 및 방문 목적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생소함을 떨쳐버리는 동시에 본국 생활에 대한 성찰과 아울러 외국으로의 이주결정을 비교적 손쉽게 내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King *et al.*, 2003; cf. Brooks *et al.*, 2009). 본 조사 대상자 중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25%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외국 방문의 목적은 관광(여행), 유학, 가족(친지) 방문, 취업, 기타 순이었다. 또한 조사 유학생 가족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77.1%(276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체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 형제(7.0%), 여자 형제(5.6%), 아버지(1.6%), 어머니(0.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6.4%)와 무응답(1.7%)도 있다. 가족 중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살펴보면, 유학(36명, 10.1%), 취업(16명, 4.5%), 이민(14명, 3.4%), 국제결혼(5명, 1.4%), 기타(4명, 1.1%) 순으로 밝혀졌다.

(2) 유학의 개인적 결정 요인과 과정

유학이라는 이주현상은 다양한 거시적 배경이 작용할 수 있으며, 출발지의 밀어내는 요인과 목적지의 당기는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학의 의사결정에는 개인적 차원의 미시적 동기가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

론 여기서 유학생이라는 이주 행위자의 미시적 차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들의 결정이 반드시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이 지적하듯이 전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이뤄진다고 말하는 것을 아니다. 개별 유학생은 오히려 개인의 내적 동기와 개인의 외적 계기(즉, 유학에 대한 정보와 이주연결망 등)를 바탕으로 하여 대안적 유학 대상국의 탐색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선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유학 결정 시 고려한 사항과 관련하여 유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갖가지 유학 목적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유학 후 능력 향상'으로 3.96점이었다. 다음으로 '학문적 욕구의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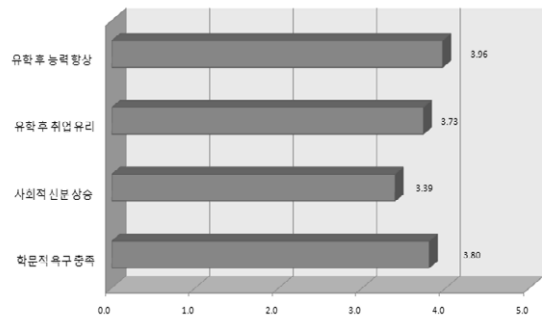


그림 3. 유학 결정 요인

족'(3.80점), '유학 이후 취업에 유리'(3.73점),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대'(3.39점) 순이었다(그림 3).

이처럼 외국 유학 결정은 본국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 대학으로 유학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선택적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학 결정 시 본국 및 한국의 교육 및 여타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조사하였다. 이점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들의 출신국의 교육여건과 한국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역시 또한 5점 척도로 분석하여 요소별로 비교해 보았다(그림 4).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보면, 외국에 대한 견문이 부족하고 또한 유학을 하지 않을 경우 장차 직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출신국의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이나 본국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학을 결정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유학 목적지로서 한국의 대학교육 상황과 기타 여건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유학의 결정은 이러한 출발지와 목적지의 경사 내지 여건의 차이를 배경으로 하여, 유학 이후 개인적 자질과 능력 향상, 취업에의 이점, 사회적 신분상승, 학문적 욕구의 충족 등의 동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사회적 수요와 개인적 목적에 부합하여 유학을 결정하였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디로 유학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

소 복잡한 탐색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유학 대상국으로서 한국의 결정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가 아니라 한국과 더불어 타 대상국들을 폭넓게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유학생들이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를 유학 대상국으로서 생각한 경우가 약 57%(207명)에 달하며, 구체적인 대상 국가들로서는 일본·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을 많이 거론하였다. 아울러 유학 대상국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대상국의 이미지(59명, 16.5%)와 개인적 관심사(52명, 14.5%), 개별 대학들에 대한 인지 여부(27명, 7.5%) 등을 크게 참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을 유학 대상국으로 결정한 데에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본국과의 인접성 그리고 저렴한 생활비 등의 이익과 효용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유학에 따른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준비기간이 요구되며,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유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매개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인 국내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을 위한 정보를 주로 학교와 연구소, 가족이나 친척, TV 및 신문광고 등 대중매체 그리고 유학 중개업체 등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 정보의 획득과 함께 한국 유학, 특히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간에 걸친 준비과정을 거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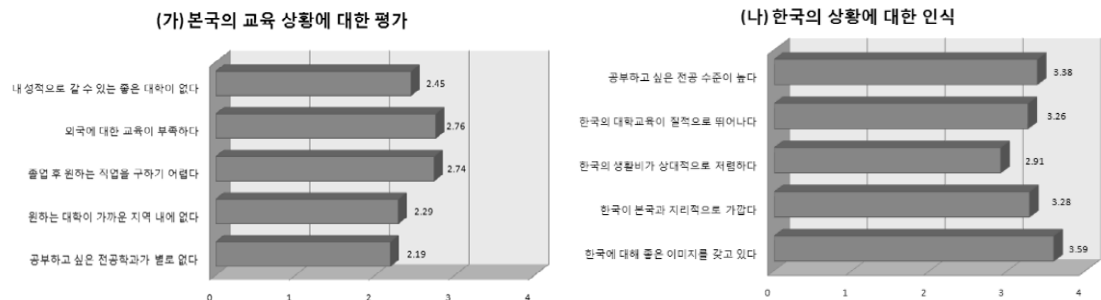


그림 4. 본국과 한국의 교육상황에 대한 평가

알려졌다. 유학 준비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행한 경우가 4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진 경우도 높게 조사되었다. 유학 비용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가족

및 친인척의 도움과 함께 개인적으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자비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정부나 각 대학의 장학금에 의존하는 유학생의 비중도 낮지 않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의 이주과정에서의 매개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유학생료를 조사한 결과, 유학생들의 주요 경로는 본국 대학의 연계를 통한 유학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학원을 통한 소개가 21.8%로 전체 유학생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한국 유학 결정을 위한 정보 획득과 준비 과정

| 구분              |                | 표본수(명) | 비율(%) |
|-----------------|----------------|--------|-------|
| 유학<br>정보원       | TV 및 신문광고      | 48     | 13.4  |
|                 | 가족 및 친척        | 52     | 14.5  |
|                 |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    | 25     | 7.0   |
|                 | 유학 중개업체        | 46     | 12.8  |
|                 | 사회 및 종교 단체     | 9      | 2.5   |
|                 | 정부 홍보물         | 19     | 5.3   |
|                 | 학교와 연구소        | 110    | 30.7  |
|                 | 기업체            | 5      | 1.4   |
|                 | 기타/무응답         | 44     | 12.3  |
|                 | 계              | 358    | 100.0 |
| 유학<br>매개<br>기관  | 본국 유학원(어학원) 소개 | 78     | 21.8  |
|                 | 본국 대학과의 연계     | 102    | 28.5  |
|                 | 본국 고등학교의 소개    | 12     | 3.4   |
|                 | 본국 정부기관 소개     | 15     | 4.2   |
|                 | 한국 유학원(어학원) 소개 | 15     | 4.2   |
|                 | 한국 정부기관 초청     | 19     | 5.3   |
|                 | 한국에 있는 친구 소개   | 34     | 9.5   |
|                 | 유학박람회          | 11     | 3.1   |
|                 | 본국/한국 기업과의 연계  | 2      | 0.6   |
|                 | 기타/무응답         | 70     | 19.58 |
| 계               | 358            | 100.0  |       |
| 유학<br>준비<br>기간  | 1개월 미만         | 40     | 11.2  |
|                 | 1~3개월          | 69     | 19.3  |
|                 | 3~6개월          | 57     | 15.9  |
|                 | 6개월~1년 미만      | 28     | 7.8   |
|                 | 1년 이상          | 159    | 44.4  |
|                 | 무응답            | 5      | 1.4   |
|                 | 계              | 358    | 100.0 |
| 유학<br>경비<br>부담자 | 본인 직접 마련       | 55     | 15.4  |
|                 | 가족 및 친인척의 도움   | 218    | 60.9  |
|                 | 본국정부나 대학장학금    | 9      | 2.5   |
|                 | 본국 민간기관 지원     | 5      | 1.4   |
|                 | 한국정부나 대학장학금    | 53     | 14.8  |
|                 | 한국 민간기관 지원     | 2      | 0.6   |
|                 | 기타             | 16     | 4.5   |
| 계               | 358            | 100.0  |       |

## 2) 유학 단계에서의 대학의 선정 요인

이상에서 언급한 유학과정을 거쳐 입국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재학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주된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기타 요인(30.4%)을 가장 많이 거론하였으나, 이 밖에 양질의 교육(14.0%), 우수한 교육시설(10.9%), 대학의 명성 혹은 지명도(10.3%), 친구의 재학(9.2%)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을 선택한 시기를 정확히 적시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대학 선택에 있어서 유학생들은 개별 대학에 대한 적잖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친구의 재학이라는 이주 네트워크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국내 유학생들의 목하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설문조사 지역과 유학생의 국적과 입국연도, 교육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먼저 조사 지역별로 대학 선택의 이유가 다른데, 서울의 경우에는 대학의 명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경기는 양질의 대학교육을 그리고 대구는 우수한 교육시설을 언급하였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기타 요인을 가장 빈번히 응답한 가운데, 경북은 저렴한 등록금을, 광주 는 양질의 교육을 그리고 전남은 친구의 재학을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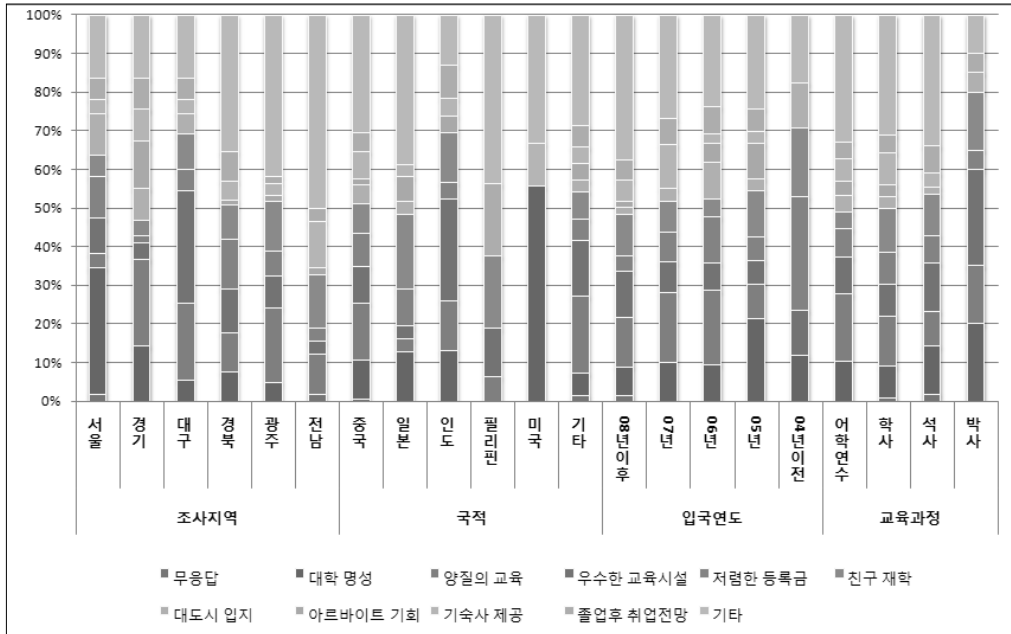


그림 5. 유학생의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선택 이유

순위의 이유로 거론하였다. 또한 국적에 따른 대학 선택의 이유에서도 적잖은 차별성이 존재하는데, 국적 역시 미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기타 요인을 다수로 거론한 가운데,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을, 일본 국적의 유학생들은 친구의 재학을, 인도 국적의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시설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국적의 유학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의 선택 이유로서 친구의 재학을, 미국 국적의 유학생들은 단연 대학의 명성을, 기타 국적의 유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주요 선택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입국 연도에 따른 재학 대학의 주된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2004년 이전에 입국한 유학생들은 저렴한 등록금과 친구의 재학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입국자들의 경우는 기타 요인을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학의 명성을 그 이유로 언급하였다. 이와 달리 2006년 이후의 입국자들은 주로 양질의 교육을 대학 선택의 주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 선택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석사 및 박사의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공히 재학 대학의 선택 이유로 대학의 명성과 우수한 교육시설을 들고, 학사과정은 우수한 교육과 친구의 재학을, 여학연수 중인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을 선택 이유로 많이 지적하였다.

### 3) 유학 이후 향후 진로 및 이동패턴

유학생 이주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유학생들이 과연 유학 국가에서 학업을 마친 후 어떤 이동패턴을 보일 것이냐는 점이다(Alberts *et al.*, 2005; Hazen *et al.*, 2006). 이는 국가 정책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유학이 흔히들 말하는 ‘두뇌유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유학 후 모국으로 귀국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이 논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Baláz *et al.*,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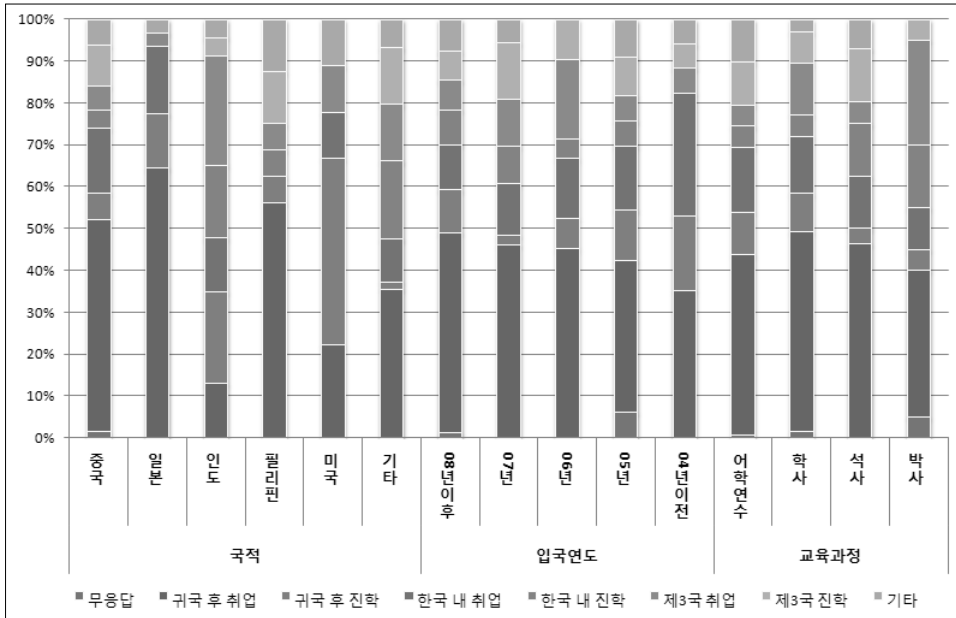


그림 6. 유학생의 유학 후 향후 진로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들의 유학 후 진로와 함께 유학 후 한국 체류 시 어떤 이동행태를 보일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설문조사에 응한 유학생들의 유학 후 진로는 다소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한 바처럼 유학 후 본국으로 귀환한 뒤 취업을 희망한 학생들이 45.6%(164명)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상당한 격차를 두고서 한국 내 취업이 14.0%(50명)과 제3국 취업 및 제3국 진학이 같은 8.9%(32명)와 8.9%(32명), 귀국 후 진학이 8.1%(29명), 한국 내 진학이 7.0%(25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유학 후 진로는 국적, 입국연도, 교육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그림 5). 국적의 경우 중국·일본·필리핀은 귀국 후 취업을, 인도는 귀국 후 진학과 제3국 취업을, 미국은 귀국 후 진학을 그리고 기타는 역시 또한 귀국 후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입국연도에 따른 진로를 살펴보면, 2004년 이전에 입국한 유학생들은 주로 귀국 후 취업과 아울러 한국 내 취업을 중요하게 계획하고 있는 반면,

2005년 이후에 입국한 유학생들은 대체로 본국으로의 귀환 후 취업을 주로 구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 전망을 고찰해 보면, 어학연수나 학사 및 석사 과정생들은 과반수에 이르는 높은 비중으로 귀국 후 취업을 희망한 반면, 박사 과정생들은 귀국 후 취업과 함께 제3국 취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유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유학 후 국내 체류보다는 귀국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약 27%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은 한국 내 취업 또는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구체적인 취업 이유와 취업선호 지역을 우선 살펴보았다(그림 6). 한국 취업 사유로서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려는 것과 향후 귀국 시 한국에서의 취업 경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많이 거론하였다. 그리고 향후 취업 희망 지역으로서는 역시 서울 및 수도권을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학 후 한국에서 계속하여 학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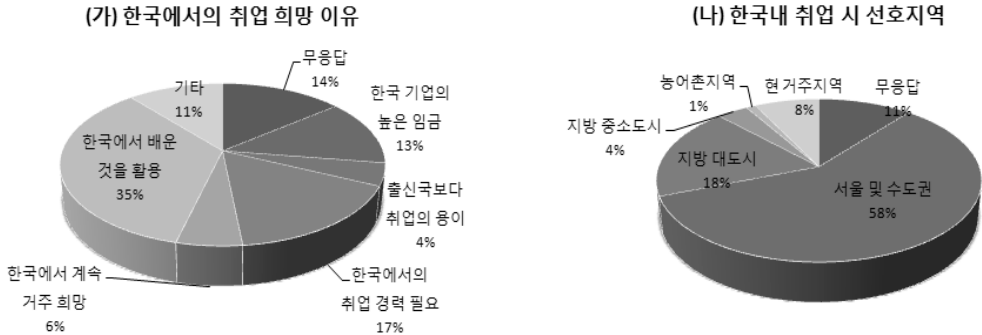


그림 7. 유학생들의 향후 한국 내 취업 이유와 취업 선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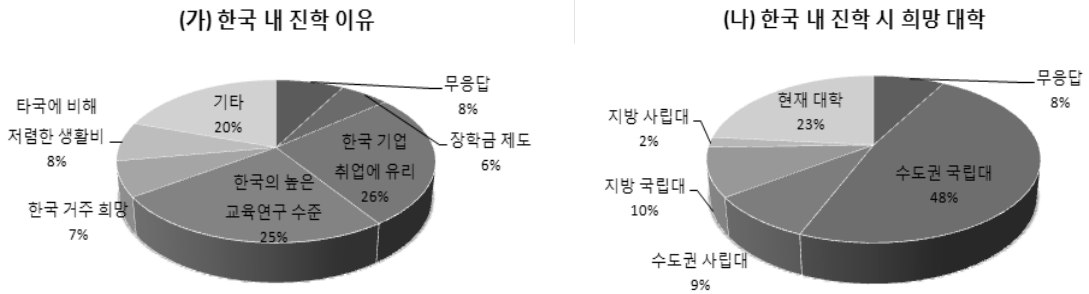


그림 8. 유학생들의 향후 한국 내 진학 이유와 진학 선호 대학

진학 이유와 진학 희망지역을 살펴 본 결과(그림 7), 한국 내 진학 이유로서는 한국의 높은 교육연구 수준과 학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데 유리하다는 점, 타 선진국들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학비 포함)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장차 진학 시 선호하는 대학으로서는 수도권 국립대학이 48.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 계속 학업을 하겠다는 것(23.5%)도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 4. 결론

최근 들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이 폭증하

고 있다. 2008년 4월 현재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00년과 비교하여 10 배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로 늘어난 6만 4,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외국인 이주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끌어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유학생 이주도 일반적으로 한 국가로 유입되는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유입 성격과 이주패턴 그리고 적응 및 정착과정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체류 목적이나 기간, 향후 본국으로의 귀환여부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주요 배경요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

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과정을 유학 전, 유학 중, 유학 후라는 3단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의 이주성격과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2008년 10월~2009년 1월에 걸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주요 배경요인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전의 삶의 여건을 살펴보면,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가정경제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고 세대주의 직업도 주로 사무직·경영직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도 고졸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출신지역도 중도시 이상이 많고 거주지역의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국 유학 전에 타 국가를 여행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 내외로 파악되었다. 유학은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되며, 향후 개인의 삶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인생 설계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유학은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의 세계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련한 질문에서 국제적 이주, 국가간 자본과 상품 이동, 교통통신의 발달, 국가간 경제적 발전수준의 차이 등에 대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유학생들의 출신국의 제반 상황에 관련해서는 경제수준과 취업기회, 정치상황, 복지수준, 물질문화 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유학 대상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뚜렷한 대조양상이 보인다.

둘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미시적인 유학 동기에 있어서는 특히 본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저조한 평가와 동시에 한국의 대학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출발지와 목적지의 교육여건과 환경 등의 차이 내지 경사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유학의 결정은 유학 이후 개인적 자질과 능력 향상, 취업에의 이점, 사회적 신분상승, 학문적 욕구의 충족 등을 복합

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한국으로의 유학 결정이 유학 대상국으로서 한국은 물론이고 여타 국가들을 폭넓게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유학 대상국을 선택하는 데에 개인적 관심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저렴한 학비(생활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의 실질적인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학교나 연구소를 통해 한국 유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주로 유학경로 내지 매개체로 유학원을 크게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는 1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유학 비용은 가족과 친인척의 도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국내 입국 전후로 유학생들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명성과 우수한 교육, 양호한 교육시설, 본국 친구의 재학 여부, 저렴한 등록금 등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 유학 후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는 복잡다단한 양상이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에 있어서는 본국으로 귀국 후 취업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으며, 뒤이어 한국 내 취업과 한국 내 진학 등을 빈번히 거론하였다. 한국 내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그 이유로서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목적을 주로 내세우고, 또한 장차 취업 시 선호하는 지역으로서는 수도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국에서 계속하여 학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이유로서는 한국 기업에의 취업 용이성을 가장 빈번히 들고, 한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선호하는 대학으로서 는 수도권 국립대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이어 현재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전후 및 그 이주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즉, 유학생들이 유학을 거시구조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외적 상황과 배경을 고



려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주의 각 단계마다 개인의 직업적·주관적 동기와 요인에 입각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주

- 1) 본 정책의 목적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세계 중심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함”에 두고 있다.
- 2)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 석사 학위논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으로 행해지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밖에 각 대학 차원에서 외국인 학생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실태 차원의 조사가 많이 있다(박은경, 2008; 쓰네야마 토모요, 2009).
- 3) 유학생의 이주흐름은 최근 관찰되기 시작한 ‘청년층의 이동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되기도 한다. 유학이 전통적인 경제적 이동 동기, 곧 일자리를 찾거나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보다 젊은 날에 경험을 쌓는다는 목적에 한층 더 좌우된다는 것이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젊고 포스트모던적 개인들의 ‘do-it-yourself’의 관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Murphy-Lejeune, 2002; HEFCE, 2004: 49).
- 4) 비슷한 맥락에서 아울러 유학에 대한 출신국 사회의 인식도 유학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데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학 전 본국에서 유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긍정적이었거나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64.5%,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31.0%이었으며, 부정적이었거나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응답은 4.2%에 지나지 않는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8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서울.

권양이,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4(1), pp.301-333.

김남희 외, 2005, “국내 고급인적자원의 국내 유치 실태에 관한 연구: 입국과 체류생활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23(1), pp.357-374.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pp.81-106.

노종희 외, 2002,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역별 대학 마케팅 전략, 교육인적자원부.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16-634.

박은경,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국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응수 외, 2004, 전문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박태호 외, 2001, 대학의 국제화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교육부.

석현호, 2003, “국제이주이론의 검토,”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pp.15-48.

안선민 외, 2006,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을 위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3(1), pp.31-44.

안영진, 2008, “세계의 유학생 동향과 국제적 이동 특성,” 지리학연구 42(2), pp.223-236.

안영진·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pp.476-491.

안영진 외, 2002, 노동시장의 지리학, 서울: 한울 (=Fassmann, H et al., 1997, *Arbeitsmarktgeographie*, Stuttgart: Teubner).

이명재 외, 2006,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취업연계 장학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이익수 외, 2006, “중국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29(5), pp.437-454.

이태식 외, 2009,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방향 도출: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2(1), pp.42-56.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

- 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pp.259-284.
- 쓰네야마 토모요, 2009, 일상생활 공간과 다국적 유학생들의 정체성 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순 외, 2007, 해외인적자원 유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江淵一公, 1990, “留學生受入れの政策と理念に関する一考察 - 主要國における政策動向の比較分析から,” 廣島大學 大學教育研究センタ 大學論集 第20集, pp.33-68.
- 黒田一雄, 2007, “東アジア共同體形成と國際教育交流,” 西川潤·平野健一郎(編), 國際移動と社會變容, 東京, 岩波書店, pp.227-247.
- Alberts, H. C. and Hazen H. D., 2005, “There are Always Two Voices ...’: International Students’ Intention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or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International Migration* 43(3), pp.131-152.
- Altbach, P. G. and Knight, J., 200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3/4), pp.290-305.
- Baláz, V. and Williams, A. M., 2004, “‘Been There, Done That’: International Student Migration and Human Capital Transfers from the UK to Slovakia,” *Population, Space and Place* 10, pp.217-237.
- Brooks, R., and Waters, J., 2009,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and the mobility of UK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8(2), pp.191-209.
- Budke, A., 2003, *Wahrnehmungs- und Handlungsmuster im Kulturkontakt: Studien über Austauschstudenten in wechselnden Kontexten*, Osnabrücker Studien zur Geographie 25, V & R Unipress GmbH.
- Castles, S. and Miller, M. J.,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The Guilford Press, pp.20-49.
- Chen, T.-M. and Barnett, G. A., 2000,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 Flows from a Macro Perspective: A Network Analysis of 1985, 1989 and 1995,” *Higher Education* 39, pp.435-453.
- Hahn, K., 2004, *Die Internationalisierung der deutschen Hochschulen: Kontext, Kernprozesse, Konzepte und Strategie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Hazen, H. D. and Alberts, H. C., 2006, “Visitors or Im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2, pp.201-216.
-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2004,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ssue Paper 2004/30), Bristol.
-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8, *World Migration* 2008, pp.105-125.
- Isserstedt, W. and Schnitzer, K., 2005, *Internationalisierung des Studiums: Ausländische Studierende in Deutschland, Deutsche Studierende im Ausland*,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onn/Berlin.
- King, R. and Ruiz-Gelices, E., 2003, “International Student Migration and the European ‘Year Abroad’: Effects on European Identity and Subsequent Migration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9, pp.229-252.
- Kwiek, M., 2001, “Globalisation and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in Europe* 26, pp.27-38.
- Lee, J. J., 2008, “Beyond Borders: International Student Pathways to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3), pp.308-327.
- Murphy-Lejeune, E., 2002, *Student Mobility and Narrative in Europe: The New Strangers*, London: Routledge.
- Naidoo, V., 2007, “Research on the flow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UK universities: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6(3), pp.287-307.
- OECD, 2004,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OECD Policy Brief* 2004/8, Paris.
- OECD, 2007, *Education at a Glance* 2007, Paris.
- Pimpa, N., 2003, “The Influences of Peers and Student Recruitment Agencies on Thai Students’ Choices of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7(2), pp.178-192.

Pries, L., 2008, "Internationale Migration," *Geographische Rundschau* 60(6), pp.4-10.

Teichler, U.(Hrsg.), 2007, *Die Internationalisierung der Hochschulen: Neue Herausforderungen und Strategien*, Frankfurt: Campus.

UNESCO, 1998, *World Statistical Outlook on Higher Education: 1980-1995*, Paris.

교신: 안영진,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지

리학과, 전화: 062-530-2686, 이메일: yjahn@chonnam.ac.kr

Correspondence: Young-Jin Ah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el: 062-530-2686, E-Mail: yjahn@chonnam.ac.kr

최초투고일 2009년 9월 14일  
최종접수일 2009년 12월 21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2, No.4, 2009(344~363)

## **A Study on Incoming International Students' Immigration Process and Backgrounds\***

Young-Jin Ahn\*\*

**Abstract** :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Korea since 2000 as the government has made a consistent effort to draw in international student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An increase of incoming international students help Korean universities solve a current problem of decreasing student numbers and bring financial benefits. However, not much is known about their inten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ir immigration process and backgrounds that have not yet been dealt with seriously in academic areas. The immigration process can be divided into 3 steps - pre-immigration, settlement and adaptation, post-immigration. Characteristic of each step related to a main decision-making are investigated in the paper. Their decision for studying in Korea depends on various factors and conditions. Especially, economical, personal, and vocational factors or motives in combination influence their decision-making at each step.

**Keywords** : oversea education, international student, student mobility, intention, decision-making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7-322-B00024).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